

차별이 불러온 세계

M2017112 최시원

01 들어가는 글

‘차별’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된
세계관 설정

인간은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환경을 바탕으로 삶을 왜곡한다.

같은 이야기를 두고도 보고 듣는 것에 따라 하나의 이야기가 수없이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은 무수한 요소들에 영향을 받고 움직인다.

특히 집단행동을 하는 인간은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집단은 특정 인물이 조금만 달라져도 반감을 일으키고 격리시킨다. 우리는 이것을 차별이라 부른다.

세상은 차별로 가득하다 말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또 다른 왜곡을 남긴다.

나는 이 세계를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02

말하는 글

연구배경과 목적 자료조사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간이 다른 문화와 직면하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차이를 인식하는 기회 또한 늘어났다. 다른 집단과 접촉하면서 생기는 습관, 종교, 언어의 다름은 인간에게 고통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안겨주며 차이가 아닌 차별을 낳는 원인이 된다.

차별은 원래 '차등을 두는 구별'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비판적 의미가 가미되어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특정 집단(인종, 민족, 생활양식, 국적, 성별, 사상 등)으로 분리시키고 사회생활 속에서 희생대상으로 삼는 대우를 가리킨다. 차별 받는 측은 차별하는 측으로부터 멸시나 가학(加虐) 등에 의해 불평등, 불이익한 취급을 받고 인권을 침해 당한다.

차별의 기준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문화인류학에서는 인간이 문화를 갖는 이상 그 주변에 부정적 가치를 갖는 것을 만드는 것은 필연적이며 그것에 대한 차별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전보다는 편견이 많이 줄어든 추세이지만 우리는 말로 쉽게 하는 것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여전히 차별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일상에 스며든 작은 편견들조차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여자는 조신해야 하며 남자는 머리가 짧고 울지 않아야 하고 뚱뚱한 사람은 게으르다고 인식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로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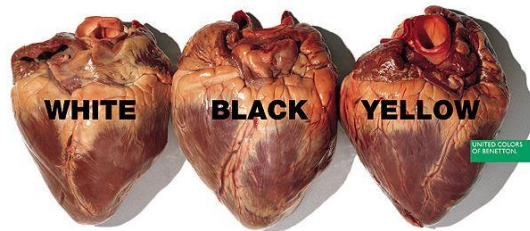


그림1 benetton의 광고

(출처: <http://duga.tistory.com/1070>)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베네통'은 사회적 금기, 이를 테면 인종, 종교, 섹스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의 터부를 허물었다.

우리는 그들의 광고를 보고 있노라면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리게 되면서도 미묘한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일도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게 되는 것처럼

베네통이 던지는 내용은 대중의 무의식에 깊게 들어왔다.

나의 세계는 앞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과 같이 차별받는 것은 대부분 사회적 요소에 의한 것일 뿐이며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쉽게 말해, 평가는 외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이다.

나는 이 내용을 풀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없으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했고 염색체와 DNA의 모양을 가져와 다양한 염색사를 이용해 나만의 유전물질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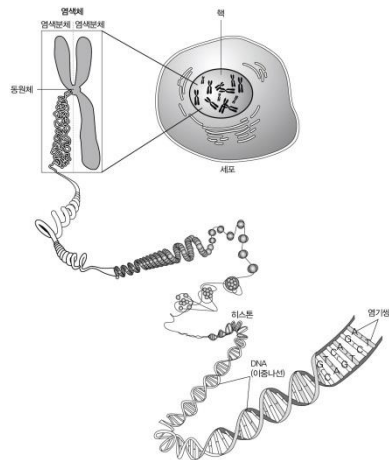


그림2 염색체의 구조

(출처: 이일하 교수의 생물학 산책)

서로 다른 질감을 가진 실들은 각자가 가진 DNA로서, 가는 선들이 모여 모양을 이루어 나간다.

감는 행위를 통해 만든 면은 축적된 시간만큼 수많은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들어진 유전물질은 실과 감는 방식에 따라 비슷한 형태인데도 다르게 보이며

모든 인간은 차별 받지 않고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03

맺는 글

작업에 대한 이야기 정리

우월한 인간은 없다.

사람의 기본적 권리는 상대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차별은 여전히 형태를 달리하며 지속되고 있지만 예전과 달리

비판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사회에 녹아있는 수많은 편견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무리일지 몰라도

나는 이 작업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갈 생각이다.

도움글 차례

한국사전연구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권오길, 권오길의 괴짜 생물 이야기
금지된 것들에 고한다- 베네통 광고전략
<http://www.doopedia.co.kr>